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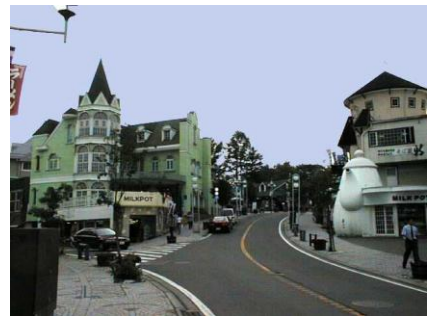
## 2012 秋期 山梨観光通訳ボランティアガイドセミナー（韓国語）

山梨通訳ボランティアネット

韓国語代表 安仁淑

### I. 야스이케 오키오(安池興男)씨와 폴 럿슈씨와 관계 깊은 기요사토의 역사

#### ■기요사토(清里)



여러분 안녕하세요 !

지금부터 아마나시현 개척의 땅, 아름다운 고원, 기요사토의 안내를 해 드릴  
○○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 주세요. ^ 0 ^ .

오시면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의 기요사토는, 호텔과 펜션, 별장 등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80 년 정도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추운 불모지였습니다.  
이 불모의 땅이 바뀌게 되는 3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 등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1. 그 하나는, 1933 년에 철도, 고우미선 기요사토역이 생기므로써, 한랭지면서 계다가  
화산회토(火山灰土)인 탓에 작물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던 기요사토에, 갑자기 사람들의  
유송수단이 생긴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요사토는, 해발 1,200 미터에 달하는 고원지대입니다. 물도 차고, 하늘은 넓고, 멀리  
후지산이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고원입니다.

이 야즈가타케 산록의 고원이 기요사토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대략, 메이지  
8 년(1933 년)부터입니다. 이 해 2 월 15 일에, 당시 아사카와 무라(淺川村)와 가시야마  
무라(檜山村)가 합병되어 키요사토 무라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디만, 기요사토역이 생기므로써, 지금과 같이 활기넘치는 기요사토로  
변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 두번째는 1937년에, 「대도쿄시(大東京市)백년대계(百年の大計)」라는 명목하에, 도쿄의 오고우치(小河内)댐을 만들기 위해, 오고우치(小河内)、타바야마(丹波山)、고스게(小菅), 이 3개의 촌에서, 무려 945세대가 다른 곳에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중 28세대가, 바로 이 「기요사토이주」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28세대는 기요사토의 넨바가하라(念場ヶ原)에 이주해 왔습니다. 그 다음해 1938년에 야스이케 오키오(安池興夫) 씨가 야마나시현 야츠가타케 개간사무소장이 되어 기요사토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야스이케씨가 개척자로서 이 기요사토에 왔을 때만 해도, 기요사토는 그저 한낱 황야지에 불과했습니다.

마땅한 지원금이나 원조도 주지 않았던 나라와 현에 대해서, 야스이케 씨는 사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이주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야스이케 씨의 강한 지도력에 끌려, 이식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當時の清里駅前通り

기요사토는 그저 넓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산의 급경사면에 있는 밭을 겨우겨우 일구어나가는 망막함 속에서도, 야스이케 소장이 이끄는 대로, 옆 마을 나가노현 미나미 마키무라(南牧村)의 고원산업을 견학하기도 하고, 노베야마(野辺山)지구의 배추와 양배추, 이타바시(板橋)지구의 물벼래배 등, 넨바가하라 보다도 더 표고가 높은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용기를 받게 됩니다.

비료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이주민들에게, 야스이케 소장은 질소, 인산, 탄산칼륨의 3 요소 실험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산성토지를 중화하기 위해서 석회가 뿌려지고, 곡물의 종자나, 종묘가 배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가 지나도, 약속된 집은 세워질 조짐도 없어서, 야스이케 소장에게 각각이 오두막집을 짓겠다고 제의하여, 다바야마(丹波山)시대의, 숲 만드는 집짓기의 지혜를 살려, 넓은 것으로 일본 다다미 8 조 정도의 집을 지어, 차례차례 가족을 불러들여, 아이들은 무려 6 킬로미터나 떨어진 기요사토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겨우 야스이케 소장의 지도로 농사조합이 결성되게 됩니다.

여기 기요사토는, 이렇게 개척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서 만들어 낸 개척의 역사를 거쳐서, 특히 한 여름의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듯이 화려한 역 앞 거리도 기요사토의 명물이 된 세센료(清泉寮)도, 민숙도, 펜션도 커피숍도, 선물점 들도, 사람!사람!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엔의 집」을 아십니까? 천엔이면 한국돈으로 14,000 원 정도에 불과하지요.



쇼와 14 년 (1939 년) 에 기요사토 개간사무소장, 야스이케 씨의 분투로 개척자들이, 나라 · 현 · 도교시의 보조를 얻어 한 채당 천엔의 건설비로 집을 가지게 된 것에서, 천엔의 집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나, 기요사토 개척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요사토 초등학교 앞을 조금 걷다 보면, 공민관이 하나 있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각 시나 마을에 있는 「복지센터」나 「공회당」과 같은 곳인데, 야스이케 오키오 씨의 공적을 찬양하고, 또한 야스이케 씨를 그리는 뜻에서, 공민관의 「공(公)」의 글자를 발음이 같은 「야스이케 오키오」 씨 이름의 「흥(興)」의 글자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개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야스이케 씨를 주민들은 이러한 지혜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3. 세번째는, 우연히, 릿쿄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폴 럽슈가 기요사토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토교 정신에 따라, 고냉지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애쓰는 농민들의 생활과 건강을 개선시키고,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닌 위대한 교육자의 대두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요사토를 일대 교육실천시설의 장소로 하려고 마음먹고, Kiyosato Educaitional Experiment Project 의 머리글자를 따서 Keep 라고 명명하고, 기요사토 숙사를 중심으로 한 키프협회의 사업을 기요사토에서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요사토의 개척자의 한 사람, 폴 럽슈의 기념센터로 이동하실까요!  
관광객과 사람이 아주 많으니,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폴 러트슈 기념센터



### I. 폴 러트슈의 경력

폴 러트슈 (Paul Rusch 1897년 12월 12일) 은, 아메리카 켄터키 주 출신 목사였습니다. 인디애나 주 페아마운트에서 태어나,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자랐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의 도쿄와 요코하마의 그리스도교 청년회 (YMCA) 거점을 재건하기 위해서 1925년에 일본에 왔습니다. 그 후, 릿쿄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미일(日米)개전(開戰)으로 강제송환되기까지 일본의 청소년들을 지도했습니다.

미일간 전쟁으로 강제송환된 박사는, 즉시, 미국 육군일본어학교에 지원하여, 일제 2세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미국각지의 교회에서, 전쟁 후의 일본경제에의 지원협력을 호소하여, 강연활동을 하는 동시에, 한국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의 참모 제 2부 장교로서 도쿄에 돌아와, 맥아더 장군의 양해를 얻어, 일본의 재건활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성로가(聖路加)국제병원 건설자금의 모금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간고냉지에서 쌀농사에 부적합했던 기요사토고원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에서 낙농, 서양야채의 재배촉진에 의한 개척지원을 하였습니다. 박사는, 일본을 다시한번, 산간고냉지와 벌판으로부터 민주국가로써 재생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국토만으로 생활할 수 없어, 해외를 침략하고 말았던 일본이, 반대로 이 고난에 맞서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자립해서 생활하게 될 때야말로, 진정한 일본재생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혁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쌀농사가 안 되어 방치되어 있던 일본의 고냉지를 개척하여, 푸르른 목초지로 바꾸고, 냉량한 기후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근대적인 낙농과 축산, 고원야채재배 등 새로운 농업체계를 진흥시켰던 것입니다.

박사는, 1979년 성로가(聖路加)국제병원에서 82세로 서거했습니다. 기요사토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영국의 간다베리 대주교의 병문안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골은 현재, 기요사토 성 안데레교회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키프협회 활동을 통해, 미일간 민간교류의 본을 보여주고, 죽는 날까지 일본을 사랑한 위대한 박사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박사의 최후에 수중에 남은 재산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 . .

그것은 성서와 만년필, 몇 벌의 양복, 그리고 잠옷 뿐이었다고 전해줍니다! 가정도 저축도 한 푼도 지니지 않고, 평생을 일본에 대한 무상의 사랑으로 바쳤던 것이 너무도 잘 느껴집니다.

2002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기요사토의 아버지 폴 릿슈』가 제작되었습니다. 친일가로서 널리 알려져, 일본에 많은 업적을 남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 2. 기요사토의 역사

※安池興夫とボールラッシュが関わる清里開拓の歴史を先にした場合は重複することを説明。

폴 릿슈와 같은 위대한 개척자를 낳은 기요사토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호텔, 펜션, 별장 등이 많은 관광지로써 유명하지만, 8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기요사토는 그저 추운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이 불모의 땅이 크게 변모하게 되는 데는, 야스이케 오키오(安池興男) 씨와 폴 릿슈 씨! 그렇습니다. 기요사토 개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두 사람의 위인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1933년에 고우미선 기요사토역이 생기므로써, 기요사토에 갑자기 사람들의 유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37년에, 「대도쿄시(大東京市)백년대계(百年の大計)」라는 명목하에, 도쿄의 오고우치(小河内)댐을 만들기 위해, 오고우치(小河内)、타바야마(丹波山)、고스케(小菅), 이 3개의 촌에서, 무려 945세대가 다른 곳에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중 28세대가, 바로 이 「기요사토이주」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938년에 야스이케 오키오 씨가 야마나시현 야츠가타케 개간사무소장이 되어 기요사토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지원금이나 원조도 주지 않았던 나라와 현에 대해서, 야스이케 씨는 사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이주자들을 지원하였고, 이 강한 지도력에 끌린 이식자들은, 3년의 세월을 거쳐 겨우 생활이 가능하게 되도록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릿쿄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폴 릿슈가 기요사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고냉지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애쓰는 농민들의 생활과 건강을 개선시키고,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닌 위대한 교육자의 대두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요사토를 일대 교육실천시설의 장소로 하려고 마음먹고, Kiyosato Educational Experiment Project의 머리글자를 따서 Keep라고 명명하고, 기요사토 숙사를 중심으로 한 키프협회의 사업을 기요사토에서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 3. 아메리칸 풋볼 전당의 이야기

릿쿄대학 교수가 되었던 박사는, 1934 년에 도쿄학생 아메리칸 풋볼연맹을 설립하였으나, 태평양전쟁 발발로 아메리카합중국에 강제송환되고, 아메리칸 풋볼도 적대국 스포츠로 판단되어져 중단되었으나, 전쟁후 1948 년에 다시 일본에 와, 1948 년에 행해진 제 1 회 라이스볼에서는 시구식의 킥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1 년에는 일본아메리카 풋볼협회로부터 「일본 풋볼의 아버지」라는 칭호도 받아, 이 업적의 기념으로 1984 년부터 라이스볼의 최우수선수에게는 폴 릿슈컵이 수여되게 되었습니다.

### 4. 폴 릿슈 박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집무실 등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폴 릿슈기념센터 안을 함께 둘러보실까요?

기념센터에는, 신관과 폴 릿슈 저택, 2 개의 시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관에는, 릿슈 박사가 몰두했던 일본부흥의 기록과 일본아메리칸 풋볼 전당이 있습니다. 저택에는, 박사의 생전의 생활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

#### ① 엔트런스 홀

현관에서 이어지는 엔트런스 홀입니다. 접수코너와 휴식코너가 있습니다.



#### ② 전시실

전시실 입구에서 활짝 웃는 폴 릿슈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자상한 할아버지와 같은 인상이지요.



#### ③ 폴 릿슈가 일본의 젊은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Do your best, and it must be first class**

「최선을 다해서 일류가 될 것!」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 . .

- ④ 폴 럽슈가 애용한 기도서와 안경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기도 하지요.



- ⑤ 폴 럽슈를 일본어로는 어떻게 썼을까요?  
한국어 발음으로 하면 『보류라주(保瑠羅朱)』라고 새겨서 일본말로 포루랏슈라고 발음이 되도록 새겨진 인감이 남아있습니다. 머리가 좋지요!



- ⑥ 종전(終戰)직후, 기요사토의 빈곤한 개척농민들의 마음의 거점이 되었던 기요사토 안테레교회에서 쓰여졌던 풍금.



- ⑦ 비디오 코너



여기에서는 NHK가 제작한 폴 럽슈박사의 생애를 그린 비디오 등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 ⑧ 판매숍 코너

숍에서는, 폴 럽슈의 이상과 실천, 키프의 이념을 배우기 위한, 연구자료와 모국의 켄터키지방의 공예품 등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면 외국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들거예요!



- ⑨ 거실



이 거실에서 미일간 관계자가 폴 럽슈를 둘러싸고, 일본의 장래와 희망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왕족이나 정부고관에서부터 일반 서민까지,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거실에 모였던 것입니다.

거실에서 한 걸음 나가 보면, 운치있는 가든이 펼쳐집니다.

⑩ 박사의 식당

손님이 없을 때 박사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보낸 것을 엿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⑪ 집무실

폴 럿슈가 생전에 집무를 보던 대로 보존되어 있는 책상입니다.



⑫ 한 대의 타자기

이 한 대의 타자기가 몇 십억의 미국시민의 자금원조를 받아 내었습니다. 럿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타이프로 미일 양국의 지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 럿슈의 서명에 의해 보내진 편지에 의해서, 평생동안 지원자들로부터 보내져 온 우편물의 총 수가 어느 정도였을 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찌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 잘 찾아보세요!

· · · 정답은, 100 만통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⑬ 침실



폴 럿슈는 일본, 그리고 일본인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과 피곤함을 달래는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전부 바쳤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것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넘치는 기요사토 고원의 여행, 어떠셨어요?

이 편안하고 한가로우면서 아름다운 땅은, 개척으로 만들어진 땅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리조트지 기요사토에 오면, 누구나 반드시 먹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시간이 있으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